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40화)

# “천하 없는 사람도 나를 잡아가들 사람은 없다!”

## 8절: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거듭나는 과정

- 1) 신앙공동체마을과 감람산 정상 오만계단
- 2)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쇼
-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 5)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
- 6)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 7)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쇼

(지난호에 이어서)

참고로 이 요한일서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대장마귀를 기만하기 위해 예수라는 공중신 아들의 이름을 승리자로 빗대서 언급하였으며,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사실 그대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대장마귀를 이기는 자가 곧 일곱째 천사다' 라고 계시하여 기록하게 했더라면 마귀 중 노릇을 하는 죄인들이 그 성경구절을 삭제하여 전해질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이에 물과 피로서 임하신 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이에 물과 피로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신이니 성신은 곧 진리니라. 대저 증거하는 자가 셋이 있으니 성신과 물과 피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나니라.” -요한일서 5:4~8

또 다섯째 천사가 성경을 설명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엡2:8). 이 선물은 성신과 물과 피로써 임하는 성령이다. 이 세 가지 성령은 완전한 성령인데 '성신은 불로 임하는

성령이고, 물은 생수의 성령이고, 피는 이슬 같은 성령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3단계의 성령을 받은 자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긴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의 입을 빌려 이 3단계의 성령을 받으면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직설적으로 일곱째 천사가 승리자라고 말씀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화살을 다섯째 천사에게 향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일곱째 천사의 양육에 힘썼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사정이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스스로의 연단 끝에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를 점령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데 성공하여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를 업고 마귀를 기만하는 쇼를 벌였는데, 승리자는 다섯째 천사이신 영모님 당신 자신임을 암시하면서 당신이 대장마귀를 ‘원투스트레이트’로 쳐서 ‘그로기(groggy; 강타를 당해 비틀거리는 혼미 상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자가 나타난 다음에는 마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승리하여 왕의 반열에 참여하기가 쉽게 된다고 하여 교인들의 마음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하나님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점입니다. 마귀는



다섯째 천사 박태선 정로님의 설교 모습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먼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부터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위에 “대장마귀를 ‘원투스트레이트’로 쳐서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은 다섯째 천사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계시로서 앞으로 일곱째 천사를 점령한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자가 되셔서 대장마귀를 그로기 상태로 물고 갈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대장마귀 당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재 자기 자신이 그로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마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록 현재 그로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감람나무에 이은 동방의인에 대한 다섯째 천사의 증거말씀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긴자’라는 말은 대장마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온

천하에 마귀의 비밀을 어느 정도 캐서 알지 않고서는 그 말을 내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마귀만이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마귀영이 잠복하여 인간 마음의 주인공행을 하고 있다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기는 자’라는 말은 ‘나’라는 것이 마귀영이라는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섯째 천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된 대장마귀는 더 이상 다섯째 천사를 방치했다간 크게 낭패를 볼 것이기에 마침내 그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 육중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죄인에게 굴복하여 끌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대장마귀는 속성상 음란한 신이기에 음란죄를 짓는 죄인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귀에게 점령당한 각계각층의 죄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 다섯째 천사를 제거하기 위해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마귀의 앞잡이가 된 죄인들은 그

들 자신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또한 다섯째 천사에 대해 악인으로 조작한 마귀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개 마귀에게 점령된 죄인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성(理性)이 마비되어 분별력을 상실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된장인지 콩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연일 세간에서 다섯째 천사를 범죄자로 음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사람 다섯째 천사는 설교단상에서 “천하 없는 사람도 나를 잡아가들 사람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다들 다섯째 천사이신 영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었습니다. 영모님의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세상권세 잡은 자들의 악의적인 모략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섯째 천사를 따르는 교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아직 심령이 어린 교인들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나를 잡아가들 사람은 없다!”는 말씀 속에는 육중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죄인에게 굴복하여 끌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실족할까봐,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의 입을 빌려 누차 말씀하시기를,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가족도 떠나고 여러분들도 떠나서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1차 구속에 대해서 당대의 권력자 박 여인의 강력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기성교단의 모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

각하거나 혼음교 교주의 사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였습니다.

많은 죄명으로 구속 기소를 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을 볼 때 현금사기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이슬사진을 속임수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속여서 허황된 마음을 먹게 하여 많은 현금을 거두어들였으니 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재판장은 이 이슬성신이 찍힌 성화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물었습니다.

이 성화사진을 조작된 가짜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다섯째 천사는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나 재판장에게 말하기를 “재판장님! 한 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무엇이요?”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다섯째 천사는 “이 성화사진이 의심스러우시면 이 박 장로를 쇠고랑을 채운 채로 남산공원에서라도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찬송을 인도하게 하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모인 많은 기자양반들과 검사님 등과 그리고 우리교인들과 같이 사진을 찍게 해주셔서 이슬은혜가 사진에 찍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 중에 이슬사진이 찍혀 나오지 않으면 나 박 장로를 사형을 시키시고 만일 사진에 이슬이 찍혀 나오면 나 박 장로를 무죄로 석방시켜 주시오.”라고 긴급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예기치 못한 제안에 적잖게 당황한 듯이 “아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알려 주겠소!”하고 일단 확답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19>

##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第十

### 깨끗한 땅으로 장엄케 한다\_1)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불고수보리 어의운하  
如來昔在然燈佛所  
여래석재연등불소  
於法有所得不  
어법유소득불

“부처님(석존)이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느냐? 여래(석존)가 옛적에 연등불(然燈佛)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었느냐? 아니냐?”

不也世尊  
불야세존  
如來昔在然燈佛所  
여래석재연등불소  
於法有所得不  
어법유소득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석존)께서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실제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수보리 어의운하  
菩薩莊嚴佛土不  
보살장엄불토부

“수보리야,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보

살(석존)이 불국토를 장엄한 것이냐? 아니냐?”

不也世尊  
불야세존  
何以故 莊嚴佛土者  
하이고 장엄불토자  
卽非莊嚴 是名莊嚴  
즉비장엄 시명장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하였다는 것은 바로 장엄이 아닌 것을 장엄이라고 부른 때문입니다.”

是故 須菩提  
시고 수보리  
諸菩薩摩訶薩應如是生清淨心  
제보살마하살응여시생정심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법신불)은 반드시 이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니라.”

[해설] 여기서 연등부처님(然燈佛)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구절은 불법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연등부처님이 계셨다면 그 당시에 일체중생을 제도했어야 하는데 어찌해서 연등부처님 당시에 중생들을 제도 못하고 고다마 싯달타에게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수기



연등부처님이 불사성(不死城)에 살던 선혜 행자에게 “오는 세상에 석가모니불로 출현하리라.”라는 수기(授記)를 주심

를 주었을까요?

불교에서는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하나로 뭉치는 세상, 즉 일합상(一合相)이 되는 세계를 만드는데, 석존은 지금 제자인 수보리에게 “연등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법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고 묻지만 수보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하는 올바른 지혜와 성불의 법이 없으므로 부처가 아니라고 석존 스스로 증거함과 동시에 싯달타에게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수기

하고 중생들의 수고를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은 여기에서 말하는 연등부처님의 비유는 바로 방편의 가르침으로써 제자들과 대중을 이끌기 위하여 연등부처님을 포함하여 과거의 일곱부처님(過去七佛)을 말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러한 부처가 없었기에 수보리에게 연등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진실로 불도를 이루신 부처님이 한 분 나오시면 그 뒤에는 다시 부처님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불도를 이룬 부처라면 그 부처님이 일체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다시는 중생상이 없고, 온 우주를 부처님의 청정한 불국토로서 장엄하게 하는데 다음에 부처님이 또 나와서 하실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진짜 부처님이 한 분 나오시면 전무후무(前無後無)한 부처님이기에 더 이상의 부처가 필요 없으므로 석존도 연등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법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응대(應對)하는 수보리도 석존으로부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이 모두 한 몸이며 이러한 뜻으로 삼세여래일체동(三

世如來一體同)이라는 뜻을 알고 있었고, 미래에 미륵여래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수기를 미륵에게 하는 것을 본 수보리는 지금 석존께서 “연등부처님에게 법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석존의 가르침과는 뜻이 다르므로 법을 얻지 못했다고 바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은 결국 성불하는 대승의 법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땅을 부처님의 땅으로 만들지 못했으므로 수보리는 장엄하게 불국토를 이룬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석존은 설사 석존이 불국토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는 또 자기의 자집에 빠지는 일이 되므로 미래에 보살마하살은 이런 아상(我相)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보살의 마음도 이와 같이 머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석존 스스로도 아무런 법을 가진 바가 없으므로 어찌 부처님의 청정하고 장엄한 땅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진실로 내가 부처님의 땅을 만든 적이 없음을 바로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明鐘